

경희인(in) 실리콘밸리

유전 데이터 지킴이, 시작은 막연한 꿈에서부터

③전상수 동문(컴퓨터공학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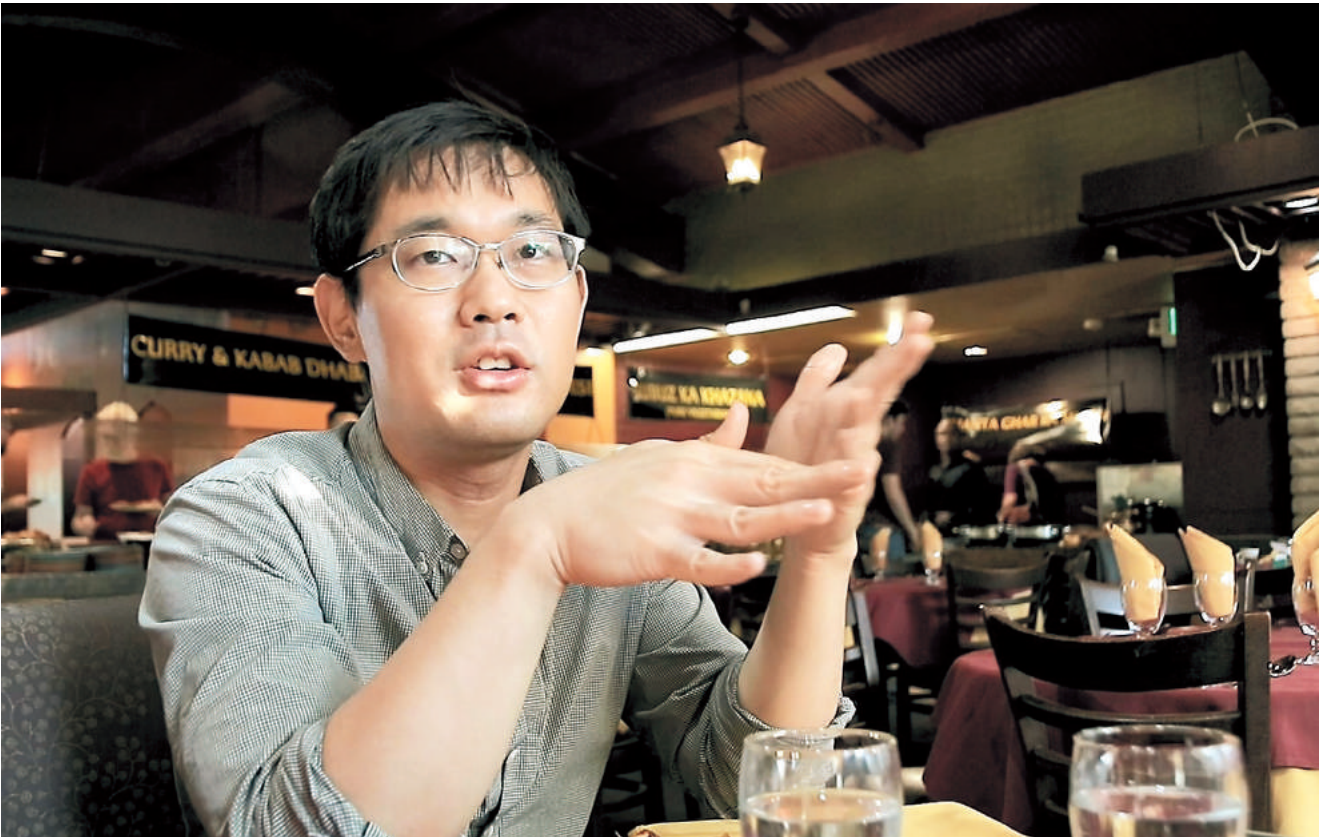
#. 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혀 다른 세 전공의 학생이 글로벌융합설계장학을 통해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전공을 모색하고 돌아왔다. 김도훈(응용화학 2013), 유재욱(한국어학 2012), 류성한(환경학 및 환경공학 2014) 씨는 세계 유수의 IT공룡 기업이 모인 실리콘밸리, 그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희 동문을 만나 글로벌 IT기업 진출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이 보내온 이야기를 대학주보를 통해 소개한다. 세 번째 순서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디엔에이넥서스(DNAnexus)’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상수(컴퓨터공학 2007) 동문이다.

“저는 ‘DNAnexus’에서 Product Management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품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전상수(컴퓨터공학 2007) 동문의 담백한 자기소개다.

실리콘밸리에는 페이스북, 구글 등 우리에게 친숙한 글로벌 대기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임지를 구축한 크고 작은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전상수(컴퓨터공학 2007) 동문이 근무하고 있는 이 회사가 그렇다.

이 회사는 유전 정보의 공유와 관리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다. 병원이나 연구소, 제약회사가 DNAnexus의 문을 두드리는 고객들이다. 회사는 이들 고객들이 많은 양의 유전 정보를 빠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전 동문은 우리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이들 더 깊게 공부했다. “대학원에서 메디컬 분야의 정보를 편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미국에 가기 전 한국IBM에서 일했습니다”라며 현재 회사에 들어가기 전의 경력을 설명했다.

전 동문의 정확한 직위는 ‘인턴’이다. 취업을 위해 으레 해야 하는 것, 제대로 된 처우도 없이 쓰이는 그러면서도 그조차 잡기 어려운 한국의 인턴과 미국의 인턴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전 동문의 설명이다. 전 동문은 “한국의 인턴보다는 부담스러운 정도로 실무적이며 큰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다”라며 “많은 책임이 필요한 자리인 만큼 보수도 정직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매니저가



전 동문은 뒤를 따라올 후배를 위해 머신러닝과 보안은 확실히 상승세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라

휴가로 자리를 비워 그의 역할까지 맡고 있다며 웃어보였다.

업무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선 나이 많은 인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실리콘밸리 인근 대학 학생들도 한국과 비슷하게 방학이 되면 인턴 자리를 찾지만 특이한 것이 이곳에서는 박사 과정이나 학위자도 인턴을 찾는다.” 실제로 서른 살 넘은 박사들이 인턴 자리를 찾아온다고 한다. 전 동문은 한국처럼 형식적인 인턴을 하지 않는 만큼, 인턴 경험이 일종의 ‘필수 스펙’이라고 이야기했다.

전 동문을 미국으로 보낸 원동력은 끊임 없는 연구와 공부였다. 그는 지금도 인턴을 하며 현지 대학에서 전문석사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 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매니저먼트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Product Manage(PM)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전 동문은 “제품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는 PM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뜨고 있는 직업이다”고 소개했다. 한국에선 으레 연차가 쌓여야 관리직을 맡는 문화 탓에 이보다 자유로운 미국 진출을 택한 것이다.

전 동문은 실리콘밸리 기업 DNAnexus 이전에 한국IBM에서도 일했다. 미국의 비교적 작은 기업과 대기업 한국지사에서의

생활은 달랐다. 전 동문은 두 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자유로움’을 꼽았다. 전 동문은 “지금 회사에선 5시 인터뷰 때문에 팀장이 퇴근하지도 않았는데 인턴인 내가 먼저 ‘퇴근할게요’ 하고 퇴근할 수 있다”며 “물론 팀장도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낮 4시 반에 퇴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옆 사람이 휴가를 갔는지 여덟 갔는지도 관심이 없다. 좋게 말하면 자유로움이고 나쁘게 말하면 개인주의라고 전 동문은 설명했다. “물론 한국IBM도 야근 없고 근무하기 좋은 회사였지만 직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있었다. 한국IBM이 거의 50년이 된지라 긴 시간만큼 한국화가 이뤄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한국IBM은 글로벌 IT공룡 IBM의 한국 내 자회사로 글로벌 기업이긴 하나 한국지사는 이미 1967년 설립됐다.

글로벌 대기업인 IBM은 면접 방식도 달랐다고 한다. “한국IBM에서는 간단한 알고리즘 문제와 경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면접 내용을 소개한 전 동문은 “외국계 회사이다 보니 원어민과 일대일 영어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관련 전공자라면 누구나 선행해 마지않는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전 동문은 실리콘밸리 취업 조건도 잊지 않았다. “미국은 추천인과 비자 문제가 꽤 큰 차이로 작용

한다”며 “솔직히 말하면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것이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이면 백, 모두가 유학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 동문은 그런 이들에게 관련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분야의 Github(깃허브) 프로젝트에서 contributor(컨트리뷰터)가 되도록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깃허브는 일종의 프로그램 코드 관리 및 공유 서비스로, 기업과 개인을 불문하고 많은 프로그램의 코드가 공유되고 있다. 컨트리뷰터는 여기 등록된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찾고 대안을 제시하며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이들을 칭한다. 전 동문의 조언처럼 실제로 최근 전 세계 IT업계는 지원자의 깃허브 계정을 일종의 포트폴리오로 요구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전 동문은 “온라인 지원은 블랙홀에 자기 이력서를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하지 말고 클래스도어라는 사이트에 면접 관련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 동문은 뒤를 따라올 후배를 위해 머신러닝과 보안은 확실히 상승세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커들의 능력 또한 비례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보안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보안 회사들은 머신러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보안 레벨을 높이는 형태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우스갯소리로 여기 실리콘밸리에선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려도 머신러닝을 활용했다고 할 만큼 흔해서 문제진 않지만요.”

전공을 불문하고 이러한 직군에 진출하기 위해선 당장은 코딩 능력에 집중하라는 전 동문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자바, 자바스크립트가 무난하지만 최근엔 파이썬으로 통일되는 분위기다”라며 “언어보단 프로그램 디자인 패턴, 자료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라고 추천했다. 프로젝트는 팀플레이이고, 미국에선 분야이 활발히 이뤄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가 발전하는 방향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 전 동문은 자신도 개발 능력이 크게 뛰어나지 않지만 실리콘밸리에 대한 막연한 꿈을 매니저라는 형태로 이룬 만큼, 프로젝트가 발전하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김도훈, 유재욱, 류성한 학생) 정리= 이후승 기자

제6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11. 1)

글을 쓰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며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글을 쓰고 이야기하는 후마니타스의 시공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행사내용	장소	
11월 1일 (목)	13:30~15:00	백일장 -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 (자유 에세이, 서평)	오비스홀 대회의실 (151호)	
	15:00~16:00	명사 초청 특강 - 박 준 시인 '쓴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16:00~17:00	백일장 시상식		

■ 백일장

● 부 문 자유 에세이 / 서평 (복수 참가 가능, 글감 당일 제시)

● 서평 도서 1. 박 준,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난다, 2017. 2. 류태호, 『성적 없는 성적표』,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 서평 참가 신청자에게 도서 무료 제공, 선착순

● 시상 내역 ○ 대상(1명)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금상(2명)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우수상(4명)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장려상(5명) -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참가 신청 9월 12일(수) ~ 10월 29일(월) 참가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전화 신청도 가능 ※ 참가신청서는 후마니타스칼리지 홈페이지 http://hc.khu.ac.kr ('알림' → HC행사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접수·문의 후마니타스 글쓰기센터 청운관 206-B호, 02) 961-0991, khuwriting@khu.ac.kr

■ 명사 초청 특강 박 준 시인, '쓴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11월 1일(목) 오후 3~4시, 오비스홀 대회의실(151호)

주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주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글쓰기센터

2018 제8회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 경진대회

대회 개요

본 경진대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가치 그리고 보고서, 발표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우수팀 팀을 선정하여 포상하여 격려

– 창의적이고 사업화의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함

– 창의적 아이디어 부문을 선정기술 조사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

– 모든 아이디어는 선정기술 조사를 필수로 하고, 아이디어를 창업/사업화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

※ 최소 2인 이상 최대 5인 이하의 인원이 팀을 구성하여 진행 ※ 아이디어의 범위는 유망의 제품 혹은 사업의 방향 및 아이디어가 모두 가능(공학, 사회/경제, 자연 과학, 예술, 디자인 등), 단, 사회적인 통념상 바람직한 것 이외에 함

심사방법

아이디어에 대해 선형기술 조사와 아이디어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

시상내역

– 대 상 : 1팀(50만 원)

– 최우수상 : 1팀(40만 원)

– 우 수 상 : 2팀(30만 원)

– 장려 상 : 3팀(20만 원)

접수방법

– 지도교수신청 : 모든 참가자는 반드시 지도교수(교수, 강사)를 선정

– 접수 기한 : 2018년 9월 21일(금) ~ 10월 29일(월) 15:00까지

– 접수 서류 : 참가신청서, 요약서, 상세계획서

– 서류 양식 : 한글파일(*.hwp) [신청서는 신청인 및 지도교수 서명 및 도장 후 스캔 파일을 추가로 제출]

– 제출 처 : ipec@khu.ac.kr (신청서 양식은 본 센터 홈페이지 http://ipec.khu.ac.kr 커뮤니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문의처

지식창업교육센터 (TEL : 031-201-5351-2, E-mail : ipec@khu.ac.kr)

세부일정

일정	내용	세부사항
10월 29일(월)	서류접수 마감	E-mail 접수
10월 31일(수)	서류접수 통과자 발표	개별 E-mail 통보
11월 7일(수)	본선발표	PPT, 구두발표
11월 9일(금)	최종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주최·주관 | 경희대학교 지식창업교육센터 | 후원 | 인국발명진흥원 | 특허청 | 경희대학교 LINC+

경희대학교 LINC+ 사업단 2018-2학기 학생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안내

설명회 참여하고 햄버거를 받아가는 LINC+사업 특별 이벤트

■ 목적

• 경희대학교 LINC+사업 주요계획 홍보

• LINC+사업단에서 진행(예정) 중인 학생지원 프로그램 홍보

■ 설명회 주요내용

프로그램	소개	신청기간	활동기간
Global AFRO (경희 청년 해외파견단)	해외시장 개척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교류협력사업	2018.10.17.(수)까지	2018.10월말 ~ 2019.2월
경희 청년 하얼빈 (경희 청년융합 캡스톤디자인)	기업의 애로사항, 문제 해결 및 위·장일 단계 도모	2018.10월말 예정	2018.10월 ~ 2018.12월
캡스톤디자인 지원금 신청	2018-2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이수자 대상 지원금 신청 안내	2018.10.12.(금)까지	2018년 2학기
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 훈련의 기회를 제공	1차: 11.15~11.21 2차: 12.3~12.7	2018 겨울학기

■ 일시 및 장소

서울캠퍼스 오비스홀 (경희대학교) 111호
대상인원 : 150명
2018. 10. 10 (수) 12:00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본대강사를
대상인원 : 200명
2018. 10. 5 (금) 12:00

■ 참가 자격 및 대상

• 2018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예정)학생

• 2018학년도 2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참여학생

• 기업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심있는 학생

• 위·장일 교육 프로그램 참여/관심 학생

• 특별한 도전을 원하는 학생

•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학생

설명회 참여 시 특별이벤트
설명회 종료 후
햄버거, 콜라 제공
(선착순 서울 150명)
국제 200명